“전법은 불자 본분” 경남 포교 결집대회 성료

‘경남 · 밀양 포교역량 결집대회’
4월 12일 밀양 용궁사 일원서
법회 · 트레킹 · 노래자랑 등 다채
1500명 “평화로운 공동체” 서원

밀양 용궁사=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2일 밀양 용궁사 및 밀양 용두산 아리랑길에서 ‘경남 · 밀양 포교역량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참가 사부대중은 ‘대중실천선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평화롭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서원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포교를 서원한 사부대중 1500여 명의 간절한 다짐이 밀양 용궁사에 울려 퍼졌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2일 밀양 용궁사 및 밀양 용두산 아리랑길에서 ‘경남·밀양 포교역량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남·밀양 포교역량 결집대회’는 지난해 6월 ‘인천·강화 포교역량 결집대회’와 11월 ‘대전·세종·충청 포교역량 결집대회’에 이어 올해 첫 번째로 열린 대회다.

대회는 오전 11시 식전 문화공연으로 막을 올린 후 1부 법회와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용두산 아리랑길 트레킹’, 2부 ‘전국사찰노래자랑-밀양 용궁사 편’과 회향식으로 진행됐다.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대회사에서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포교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장 진각 스님(표충사 주지)은 환영사를 통해 “본말사와 불자들이 신행과 포교의 길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의 자리”라며 “이러한 교류가 지역 불교를 건강하게 이끄는 힘이 되고,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불심이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치사에서 “이번 결집은 사부대중의 노고를 치하하는 장엄한 법석”이라며 “불법이 이웃과 사회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이번 결집대회는 사찰과 신도단체가 함께 협력과 연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직 강화와 포교 활성화를 통해 불자 공동체의 역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은 “고향 밀양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려 감회가 깊다”며 “이번 자리가 불자 간 화합과 연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안병구 밀양시장도 “지역과 불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중실천선언’을 통해 △정진과 자기 성찰 △자비행 실천 △불자 공동체 화합 △지혜와 자비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다짐했다. 또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로서 지역과 사회를 밝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법회 후에는 ‘엄홍길 대장과 함께 걷는 밀양 용두산 아리랑길 트레킹’과 ‘전국사찰노래자랑-밀양 용궁사 편’이 진행돼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운문사·봉녕사 ‘여성 단기출가학교’ 연다

운문사, 6월 29일~7월 5일
봉녕사, 7월 29일~8월 5일

비구니 수행사찰인 청도 운문사와 수원 봉녕사가 여성들을 위한 단기출가학교를 운영한다.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6박 7일 동안 ‘운문사 바라밀 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부터!-백프로 리얼 스님의 하루 살아보기’를 주제로 열릴 이번 출가학교의 모집대상은 대중생활이 가능한 17세부터 65세 여성 15명이다.

새벽 4시 기상해 4시 30분부터 새벽예불 및 108배에 동참하고 이후 아침 발우공양, 각 구역 청소, 상강례, 수업·습의, 후원운력, 사시 마지, 저녁예불, 경전필사, 좌선정진, 수행일기 작성 등 오후 9시 30분까지 쉼 없는 정진을 하게 된다.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이 진행되며 심신이 건강하고 출가학교 참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참가비는 성인 30만원, 고등학생·대학생 15만원이다.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사본과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가 필수다. 010-3686-7118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주관하는 제6기 봉녕사여성출가학교는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7박 8일 동안 열린다.

‘참나를 찾는 요가선명상’을 주제로 한 이번 출가학교는 기본 일과로 예불과 독경, 발우공양, 운력이 진행된다. 심신이 건강하고 출가학교 참여 목적이 분명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17세~60세 여성으로 20명 선발 예정이다.

봉녕사 측은 “정식 출가에 앞서 출가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40만원이며 학생이나 봉녕사 심우불교대학 기본반 수료자는 10% 할인된다.

접수 시 주민등록 사본과 결핵 및 B형 간염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형을 필수 준비해야 한다. 봉녕사 홈페이지(www.bongnyeongsa.org)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봉녕사는 2027년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제7기 여성출가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010-9897-4127

임은호 기자

사찰림도 전문관리 시대…컨설팅센터 본격 운영

4월 12일,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산림복지 등 7개 분야서 12명
원명 스님 “다양한 현안 풀겠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4월 12일 서울 봉은사 다래헌에서 ‘사찰림연구소 컨설팅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대표이사 원명 스님)가 기후위기와 산림재해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사찰림 컨설팅센터’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4월 12일 서울 봉은사 다래헌에서 ‘사찰림연구소 컨설팅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찰림연구소는 사찰림이 수행환경 유지와 생태환경 보전, 휴양·치유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과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내 ‘사찰림 컨설팅센터’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임기는 2026년 3월 5일부터 2029년 3월 4일까지 3년이다.

산림복지 분야에는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와 김종희 한국자연공원협회 부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살림재해 분야 자문위원에는 임주훈 해밀 산림생태입지연구소장,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장이 위촉됐다. 정규원 숲산사 산림기술사 사무소장과 임정호 임호 산림기술사 사무소장은 산림경영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사찰림 대상 조림, 숲가꾸기, 수확, 임산물 소득 관련 전반을 자문하게 된다. 법률 분야에는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전현선 (사)금산발전연구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밖에도 이학송 (사)생명의 숲 전문위원이 교육 분야를, 이선 전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가 전통조경 분야 자문을 맡았다. 생태복원 분야는 최송현·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대표이사 원명 스님은 “위원들의 전문성과 원력을 바탕으로 사찰림 내 각종 산림사업, 자연공원 내 전통문화유산 지구 관련 사업진행 등 다양한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찰림연구소는 이번 컨설팅센터 운영을 통해 사찰림 관리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대응력 강화, 사찰림 보전·활용 모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관리 매뉴얼 개발과 포럼 운영, 연구사업 연계 등을 통해 사찰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세월호 12주기’ 진도 해상서 추모기도

사노위, 4월 15일 참사현장서
희생자 304명 극락왕생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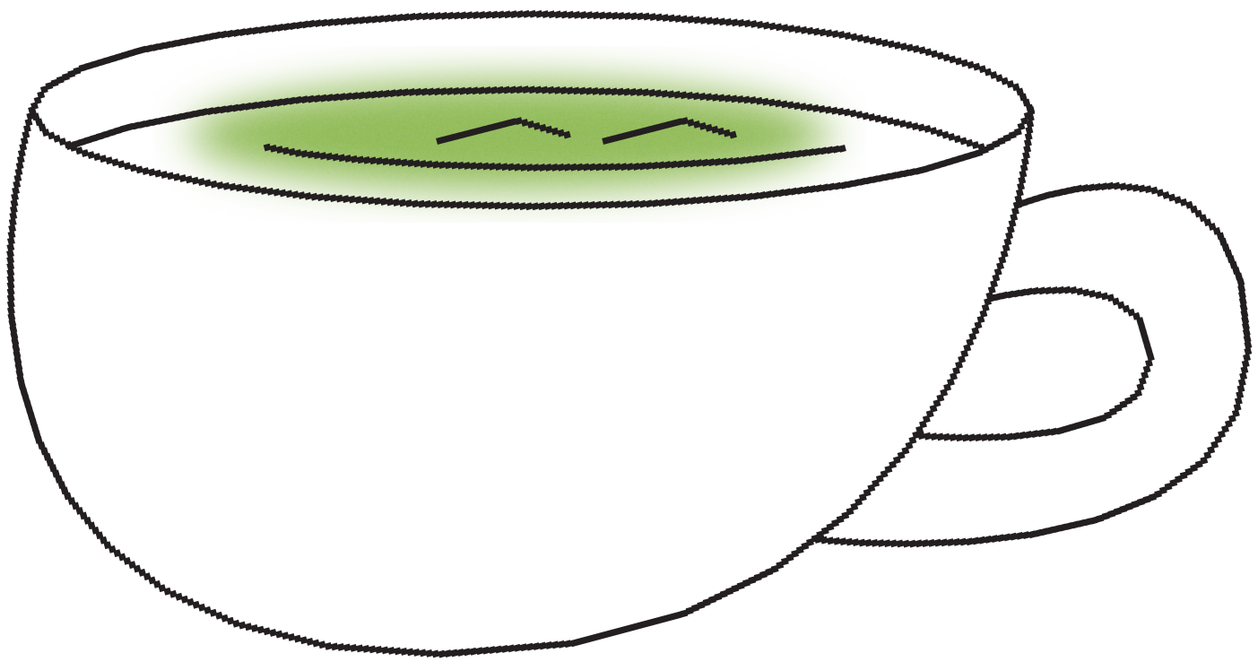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4월 15일 세월호 참사 현장 진도 해상에서 희생자 304명의 극락왕생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추모기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혜찬 스님을 비롯한 8명의 위원스님과 재가위원들, 고 조은화·허다윤 학생의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팽목항에서 1시간 가량 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동참자들은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성게’를 독송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15일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해상에서 희생자 304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나무최초식재 1198주년 경상남도 자연유산지정 39주년 기념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
SSANGYESA
TEA CULTURE
FESTIVAL
2026.5.7.
~2026.5.10.

雙磎寺

5월 7일 개원채다
5월 8일 다도의례 및 진감 초의 고산 다맥전수식
5월 9일 茶-디카시를 만나다 축하행사 및 시상식 축하공연 K파워
5월 10일 이주 가족들과 함께 하는 K-어울림 콘서트